

다카야마 축제

다카야마 축제는 봄의 '산왕제(山王祭, 산노마쓰리)'와 가을의 '하치만제(八幡祭, 하치만마쓰리)'를 합친 명칭이다.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축제의 화려로운 야타이(屋台: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수레.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과는 다름)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. 봄의 산왕제는 4월 14일과 15일에, 가을의 하치만제는 10월 9일과 10일에 개최되며, 두 축제 모두 두 수만 명의 방문객을 매료시키고 있다.

산왕제는 히에 신사의 신들을, 하치만제는 사쿠라야마 하치만구 신사의 신들을 모신다. 축제 시기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마을 주민들과 사자춤(사자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전통 예능) 무용수들이 마을을 행진하고, 야타이는 각 신사 앞으로 이동한다. 첫날 밤에는 수백 개의 등롱으로 장식한 야타이가 구시가지를 행진한다. 축제 참가자는 지역에 따라 나뉜다.

다카야마 축제는 1692년에 작성된 문서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, 그 해보다 40여 년 전에 열린 산왕제에 관해 적혀 있다. 다카야마 축제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만든 야타이는 1718년에 열린 하치만제 관련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.